

Art



THE PARKETT SERIES WITH CONTEMPORARY ARTISTS / DIE PARKETT REIHE MIT GEGENWERTSKUNSTLERN



NOV. 2012 - 2013
CHF 56.- / € 29.- / US \$ 36.-

아트인컬처
December 2013

What is
Contemporary
Art Magazine?
편집장 12인의 발언/
오늘의 아트,
오늘의 저널리즘
인덱스/
미술잡지 100

Artist/
김진 이혜인

Abroad/
이스탄불비엔날레

EDITIONS
FOR PARKETT
INSERT:
NICK RELPH

美術手帖

2009.01

vol.61 NO.91

<http://www.bijutsu.co.jp/>

BT

ブラジルのアート
Artist Interview
蔡國強
学校PRスペシャル



Art in America

OCTOBER 1996

MATTHEW BARNEY
KIENHOLZ
RETROSPECTIVE
PICASSO PORTRAITS
REPORTS FROM
CHILE & DENMARK

아시아의 새로운 아트 인더스트리

최근 동남아시아 아트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싱가포르 역시 짧은 시간 내,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는 물론, 문화특구 개발 등 공격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판화 전문 연구소 STPI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작가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양혜규의 개인전(10. 24~11. 23)이 개최됐다. 전시에 앞서 작가는 이곳에서 한 달 간 거주하며, 판화는 물론 종이 제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실험을 펼쳤다.

/ 호경운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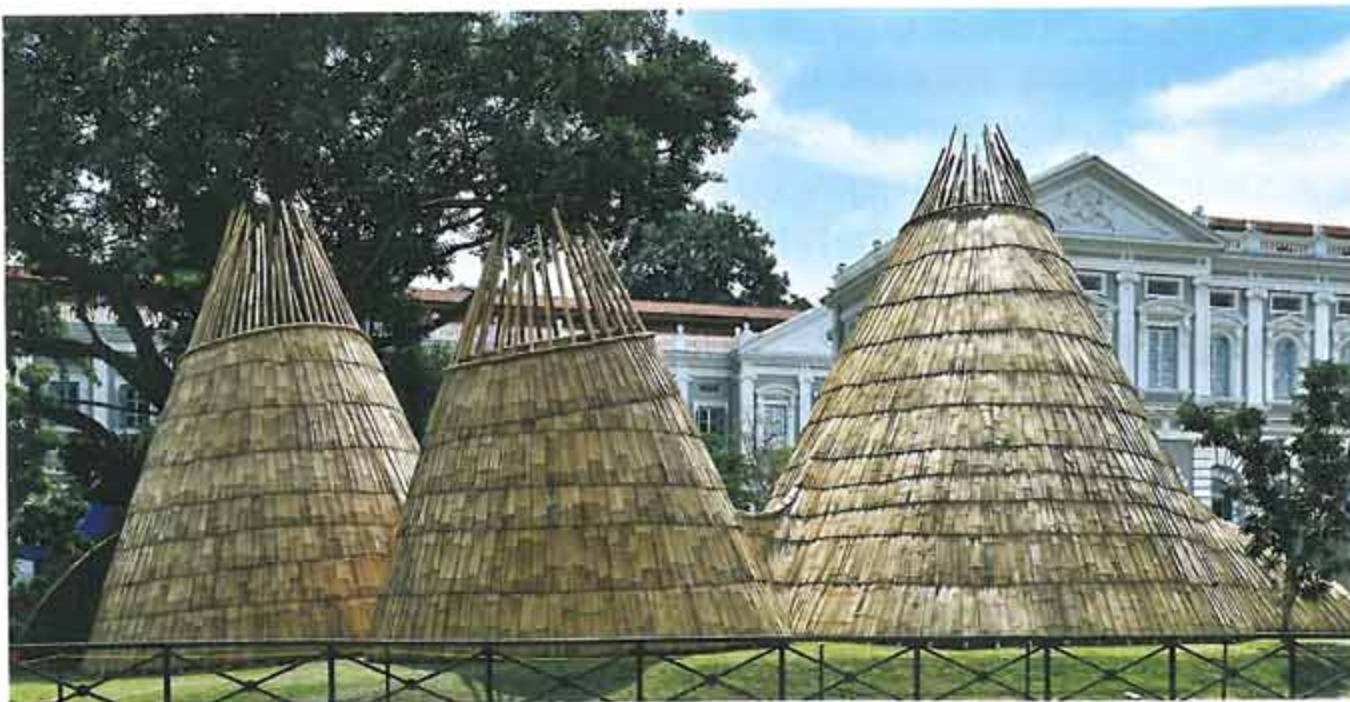
예년에 비해 추위가 빨리 찾아 온 늦가을, 싱가포르의 습하고 더운 공기는 오히려 반가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나기가 지나가지만, 사람들은 전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피하다 비가 멈춰질 때를 기다린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길거리, 정돈된 진녹색의 열대 나무들... 싱가포르의 첫 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의 모토는 '통제된 민주주의'. 2대 째 장기 집권하는 수상, 아직까지 존재하는 태형(笞刑) 등은 싱가포르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열대라는 악조건의 자연 환경 속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 규율, 원칙 등은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서울시 정도로 매우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 이상인 5만 달러를 육박할 정도로 부강하다. 싱가포르는 이제 경제 강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본격적으로 문화예술 육성 정책을 펼치기 전에 싱가포르는 관광 산업을 먼저 확대시켰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05년 '관광(Tourism) 2015'

계획을 발표하고 관광산업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싱가포르의 관광 슬로건은 '당신의 싱가포르(Your Singapore)'로 수요자 위주의 관광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센토사(Sentosa)와 마리나 베이(Marina Bay) 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연간 관광객 1,700만 명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 300억 싱가포르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싱가포르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마리나베이샌즈(쌍용건설 시공)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카지노, 호텔, 쇼핑센터, 뮤지컬 전용극장, 국제전시장, 아트 사이언스 박물관, 식물원까지 문화와 휴식, 엔터테인먼트가 한 자리에 공존한다. 또한 센토사에는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고 복합 관광단지 '리조트 월드 센토사(Resort World Sentosa)'를 개장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문화예술 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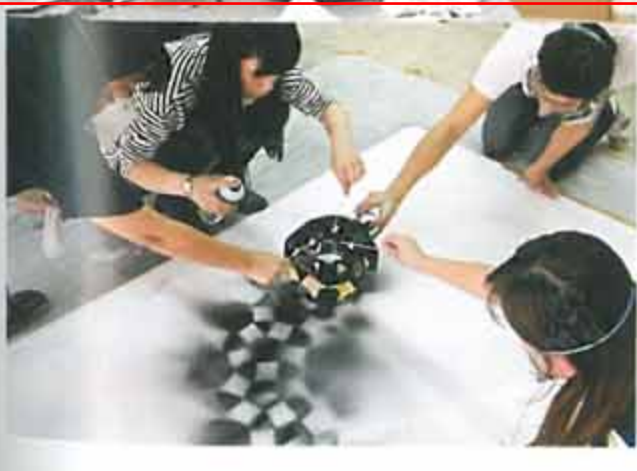
한편 1999년 발표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정책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 사업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트 인더스트리(art industry)'란 말이 자주 쓰인다. 그만큼 예술의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 기업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면세혜택을 부여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고부가가치 문화예술 분야를 국가 산업동력으로 키우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장기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로 컨템포러리 아트씬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싱가포르예술청의 관할로 2006년 싱가포르비엔날레가 창설되면서부터다. 제1회 싱가포르비엔날레는 일본 출신의 후미오 난조를 총감독으로 영입, 국제 무대로 빠르게 진입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또한 2011년에 설립된 아트페어 아트스테이지싱가포르(본지





위 · STPI의 디렉터 에이 유
아래 · STPI 워크숍 장면 / 한 사이 포 작가의 작품제작 장면 / 양혜규 작품제작 장면

왼쪽 페이지
에코 프라워터 <Wormhole> 대나무
가변크기_2013 싱가포르 비엔날레 출품작



p.168 참조) 역시 아트바젤의 디렉터였던 로렌조 루돌프를 감독으로 선임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싱가포르비엔날레(10. 26~2014. 2. 16)는 그 간의 전시 구성과는 사뭇 다르다. 스타 감독을 내세우지 않고, 싱가포르 및 동남아 중심으로 구성된 27명의 젊은 공동 큐레이터팀을 꾸렸다. 전시제목은 'If the World Change'로, 아시아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굳은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 외에도 싱가포르는 최근 문화예술 특구를 개발하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중 주요 화랑가를 이룬 곳은 길먼배럭스. 영국의 식민지 시절, 영국군대의 주둔지로 조성된 이곳은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로, 독립한 뒤 싱가포르군이 사용하다 1990년대부터는 방치돼 있었다. 버려진 병영을 국제 미술계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에서 약 800만 달러(약 900억 원)을 들여 '길먼배럭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작년부터 갤러리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곳에는 싱가포르의 주요 화랑뿐 아니라 일본의 미즈마갤러리와 오타 파인아트, 미국의 산다람 타고르 갤러리, 독일의 마이클 젠슨갤러리 등이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숨씨'를 운영하던 큐레이터 김정연도 동명의 갤러리 'Cottonseed'를 열었다.

판화 전문 연구소, STPI

한편 센트럴 비즈니스 구역의 아랍스트리트에 있는 STPI(Singapore Tyler Print Institute)는 여타의 갤러리에 비해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바로 판화전문 연구소라는 점이다. 2002년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 아래 설립된 STPI는 20세기 중반 데이비드 호크니, 재스퍼 존스,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과 함께 판화를 부흥시켰던 미국의 마스터 프린터인 케네스 타일러(Kenneth E. Tyler)가 설립에 앞장섰다.

4,000㎡ 규모로 판화실, 제지 공장, 스튜디오, 숙소 등 판화 제작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시설과 함께 갤러리까지 갖추고 있다. 500톤 짜리 프레스를 비롯해 펄프 제조 장비는 독보적인 수준이며, 이곳의 스태프는 판화 및 제지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입주 작가들은 STPI의 전문 스태프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판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만든 작품은 STPI의 갤러리에서 전시되며, 큐레이팅과 도록 제작까지 지원 받는다. STPI의 가장 주된 프로그램인 작가 레지던시는 매년 다양한 국가에서 6명의 작가를 초대해, 작품 제작을 지원한다. 1명은 싱가포르, 1명은 서양, 4명은 아시아 작가로 할당한다. 전통적인 아틀리에를 넘어서는 실험실이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화'를 전문으로하는 레지던시에 한국의 이불 전광영, 임자혁 서도호, 인도네시아의 에코 누그로호, 일본의 히로시 스기모토, 영국의 리처드 디콘, 인도의 투크랄&타크라 같은 작가가 참여했던 것은 참으로 의아한 대목이다. 일견, 판화 혹은 평면 작가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평소 설치 사진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이기 때문이다. STPI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작가들을 설득했다. 10년 전 만해도 싱가포르와 뉴욕 간의 직항 비행기도 없었다. 당시 세계적인 작가들이 이 레지던시에 오고 싶어 하도록 최고의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곳에서 작가들은 종이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아이디어라면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다. STPI의 목표는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판화 기법 역시 전통적인 매체가 아닌 또 다른 '미디어'로서 재인식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며, STPI의 안주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한국

출신의 디렉터 에미 유는 에르메스재단의 프로그램 디렉터 중 한 명으로 슈발리에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STPI에 대해 '양서류 같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비영리기관에 속해 STPI는 정부의 후원을 받지만 그 금액은 전체 예산의 25%에 그쳐 부족한 부분은 작품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해야 한다. 비교적 매매가 용이한 판화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것. 수익금은 작가 지원, 갤러리 운영, 워크숍 경비로 모두 쓰인다. 싱가포르의 아트스테이지는 물론 뉴욕의 아모리쇼, 이번 달에 열리는 아트바젤 마이애미 등 아트페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에미 유 디렉터는 지난 5월에 처음 열린 아트바젤 홍콩의 선정위원이자 아트바젤의 조인트 커미티 멤버가 되면서, 국제 미술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주목 받았다. 최근 STPI에 힘을 실어 준 곳이 있다. 바로 싱가포르의 여성 미술애호가들이 만든 비영리 사회공헌 단체인 '플랫폼 프로젝트'. 상업 갤러리는 물론, 작가 및 전시 지원, 국제 예술포럼 개최를 진행해 온 '플랫폼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레지던시 후원 사업을 시작했다. STPI의 양혜규가 첫 후원 작가로 선정됐다. 10월 24일 오픈한 STPI에서 열린 양혜규의 개인전에 공동 설립자 사비타 압티도 참석했다.

양혜규는 올해 1월, 약 한 달간 STPI에 입주해 작업했고, 당시 제작했던 작품을 지난 10월 STPI의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전시 제목은 <소박함에 인쇄된 정직함>. 오랜 시간 유럽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양혜규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한국과는 또 다른, 아니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동양, 혹은 아시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가 남긴 동양에 대한 서술을 참조했다. 대개 타고르의 서술은 서구의 시각으로

본 오리엔탈리즘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오히려 양혜규는 보다 미시적이고 접근해 타고르의 '수동성' 개념을 재발견했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의 가장 서민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과 리틀인디아 같은 재래시장에서 파는 향신료에서 오래 전 동남아와 유럽의 교역과 식민의 역사를 떠올리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된 작품은 <향신지>와 <향신월> 시리즈다.

라면수프로 만든 종이

먼저 <향신지>는 직접 종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STPI의 기술을 이용, 펄프에 후추 정향 울금 계피 등 20종의 향신료를 섞었다. 그리고 각 향신료의 포장지에 찍혀 있던 회사 이름과 원산지 표기 등을 다시 그 종이 위에 찍어 냈다. 그 후속작으로 양혜규는 5종의 인스턴트 라면수프를 이용한 <양념수프지>도 제작했다. 또한 <향신월>은 검은 종이에 원형으로 향신료를 도포한 것으로, 여러 개를 배치하면 마치 미니멀리즘 회화를 연상시킨다. 작가는 종이 만들기에 이어 판화도 시도한다. 어릴 적 야채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찍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야채 판화> 시리즈. 양혜규는 젖은 상태의 펄프에 야채와 한방약초 등의 재료를 얹고 그 위에 종이를 다시 덮은 다음 프레스기에 넣어 찍는 요철 판화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서 파생된 <도마 판화> 시리즈는 <야채 판화>를 제작할 당시, 재료 준비를 하면서 야채를 썰다가 그 바닥에 생긴 칼자국에 착안한 것이다. 칼이 만든 상처 사이로 야채 고유색의 즙이 스며든 것 역시 양혜규는 일종의 인쇄물로 정의한다.

언뜻 '놀이'처럼 보이는 이 작품들을 통해 양혜규가 판화를 조형 언어가 아닌, 하나의 태도로 받아들여 재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양혜규가 선보였던 작품들과 다소



시각적으로 상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일상적 재료에 각각의 목소리와 냄새를 찾아 주는 것은 일관적이다. 특히 <비-접기> 시리즈는 2006년 인천에서 개최됐던 <사동 30번지>전부터 지금까지 종종 등장하는 종이접기를 '인쇄'로 번역했다. 다각형 물체를 종이에 놓고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실루엣을 드러낸 판화 작품이다. 사각형의 종이 프레임 안에서 이리 저리 움직이는 다각형들은 최근 그가 관심을 쏟고 있는 '동작'이 자연스레 오버랩된다.

마지막으로 <색 분사된 분화구와 사구> 연작은 레지던시 기간 동안 실험했던 다양한 제작 기법을 모두 이용한 작품이다. 쌀알과 야채, 건조된 향신료로 종이에 요철을 만들고, 여러 각도로 색을 분사해 우주적 풍경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전시에 맞추어 나온 도록 역시 '판화 전문' 기관에서 나온 만큼, 디자인과 인쇄 퀄리티가 높다. 싱가포르 기반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 위니 고가 제작한 이 도록은 양혜규의 작품의 시리즈 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판형으로 특수하게 제작됐다. 또한 <아트아시아퍼시픽>의 연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H.G 마스터스와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싱가포르국가관을 맡은 준 압이 글을 썼다. 양혜규는 10월 한 달 동안에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조각 스튜디오, 노르웨이 베르겐쿤스트할, 미국 시애틀 헨리아트갤러리까지 총 4군데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상반기에도 스트라스부르그미술관과 보스톤컨템포러리 인스티튜트에서 굵직한 전시를 개최한 바 있는 작가에게 오히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보낸 시간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는다. 그동안 주로 조각과 설치를 중심으로 작업했던 양혜규에게 판화와 평면 작품은 새로운 도전이자, 다음 작업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였다. 특히 세계 곳곳의 레지던시를 누빈 그에게 STPI는 특별한 곳이었다. 양혜규는 STPI의 모든 것이 "인간승리"라고 말한다. 실제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판화공방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펄프 등 많은 재료 등이 젖어 있는 상태라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상하기 쉽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다. 마치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러하듯이.

아시아의 아트 허브를 선점하기 위한 아시아 대표 도시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2015년은 아시아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홍콩에는 2015년부터 M+미술관(5만3500㎡)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세계적 규모의 17개 문화 인프라와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이미 서구의 주요 미술관에서 활동하던 미술전문가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활동하던 큐레이터 우테 메타 바우어도 싱가포르의 NTU미술관의 디렉터로 부임했다. 싱가포르의 탄탄한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위 · STPI 전경
아래 · <소박함에 인쇄된 정직함> 전시 전경. <항신월> 연작이 걸려 있다.

왼쪽 페이지
위 · 양혜규 <Colour-Blown Craters and Dunes #14> 스텐실, 엠보싱, STPI 제작종이, 천연염료, cel-vinyl 잉크, 액자
가운데 · 양혜규 <Colour-Blown Craters and Dunes #15> 스텐실, 엠보싱, STPI 제작종이, 천연염료, cel-vinyl 잉크, 액자
아래 · <소박함에 인쇄된 정직함> 전시 도록

